

예수님의 참사랑을 노래한 아가 -복음으로 여는 아가- 아가 1:1-6, 요한복음 3:16

정 윤 돈 목사님

* **아가 1:1-6**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
로구나 네 기쁨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
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보다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쬘지어 거무스름할지라도 즐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이 나
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 **요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
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
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
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을 참
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
어 세계 237개 나라와 오천 종족, 땅끝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
자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새 힘을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영육 간의
병든 부분까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
옵소서. 또한, 우리의 응답과 세상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정말 나라와 민족과 교
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특별히 후대를 위하여, 또 내가 있는 직장과 하나님
이 주신 그 현장을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
운 세상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직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를 나
에게 주신 이유와 절대미션을 발견하게 하옵시며,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성
취되고 이루어질 그 언약의 말씀, 그 레미를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
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감정과 아가서의 배경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다. 아가
서를 설교하려고 준비할 때마다 참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그런
데 어제 성가대원들과 대학, 청년들이 함께 영화 '신의 약단'을 보러 갔다가 응답
을 받았다. 김형렬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북한을 배경으로 한다. 외화벌이를
위해 가짜 찬양단을 급조해 국제기구의 후원을 받으려 하는 내용이다. 북한 보위
부 장교가 단원을 뽑아 14일 만에 가짜 찬양단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기독교인들
을 잡던 사람들이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점차 변화되어 간다.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변화가는 과정이 코믹하면서도 매우 감동적으로 그려졌다. 유튜브
를 찾아보니 한 탈북민 유튜브가 이 영화를 리뷰한 영상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
는 가벼운 마음으로 리뷰하려 갔다가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평평 울었다고 한다.
자유로운 한국에 살면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불평했던 자신이 부끄럽고, 영화
속에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영
화 속에 삽입된 '은혜'라는 찬양이 주는 울림도 컸다.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 출
연배우들을 캐스팅할 때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불교신자나 무교인 사람들도 있었
는데, 영화 속 인물들이 변화된 것처럼 배우들도 실제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
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한다. 감독은 단순히 영화가 대박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품을 만드는 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
다. 영적인 것과 기의 전문성이 하나가 됐을 때 진정한 영적서밋이다. 이것이 바
로 영적 서밋이자 지식서밋, 문화서밋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런 영화나 뮤지컬,
음악을 접할 때는 큰 감동을 받고 공감한다. 그런데 아가서를 읽으면 어떤가? 예
수님의 사랑이야기라고는 하는데, 읽어보면 다소 민망한 표현도 있고 감동이 잘
오지 않을 때가 많다. 그 이유는 아가서가 솔로몬시대, 즉 약 3천 년 전의 작품
이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화려한 음악이나 영상은 없었지만, 이 아가서
자체가 당대에는 최고의 작품이자 뜨거운 사랑과 애정이 담긴 노래였다.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마디도 나오지 않는다. 이는 남녀 간의
지극히 현실적이고 뜨거운 사랑을 노래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사랑하는 애인이나 자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결이 다르다. 얼마 전 밤 11시 반에 작은 누님이 갑자기 둘째
손자 사진과 동영상 가족채팅방에 올랐다. 솔직히 내 눈에는 그렇게까지 사랑
스럽진 않은데, 본인들 눈에는 너무나 예쁜 것이다. 목사님들과 모임에 가도 그
렇다. 갑자기 휴대전화 배경화면을 보여주며 손자사랑을 한다. 사진을 보여주면
만 원, 동영상을 보여주면 삼만 원을 내라고 농담을 한다. 이렇게 그들은 보여주
고 싶어서 안달을 낸다. 왜 그럴까? 사랑하니까 그렇다. 24시간 보고 싶고 생각
나는 것이다.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를 보면 어린 시절의 순수한 사랑이 우리 마
음에 감동을 준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이와 같다. 종교적으로 거
창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애인이 애인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내 자녀
가 조금 못나거나 실수를 해도 부모의 눈에는 콩깍지가 씌어서 다 예뻐 보인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그 안에 있고, 나를 닮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겠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이
기 때문이다. 남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눈, 그리스도의 눈에는 콩깍지가 씌어
있다.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하느라 얼굴이 검게 탔지만,
솔로몬은 그녀를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
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복 받은 것 같아요”라고 고백한다. 그 말
이 맞다. 그런 믿음과 자부심이 없으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는가? 조금 잘되면
기분이 좋았다가 안 되면 나빴다가, 그래서 못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그리
스도를 향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
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까지 주신 것이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로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랑과 어
떤 좋아하는 것을 가지려 하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이것
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
이로구나”라고 기록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장을 대충 넘어가는데, 원어 의
미를 보면 ‘입맞춤’의 복수이다. “계속해서 키스해 주세요”, “온갖 방법으로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는 강렬한 표현이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 “주님, 주님의 입매와
사랑이 세상 어떤 기쁨보다 좋습니다. 그러니 나를 계속해서 더 많이 사랑해 주
세요”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연애했고 결혼하고 살아보면 그 감정이
금방 지나간다. “원수만 안 돼도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세상에 영원한 사랑은 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
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다른 누구도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떤 것도 다 용서할 수 있고,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사랑’이라는 기준이 있을 때, 사람도, 가정도, 자
녀도, 친구도 변함없이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윤석전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처럼’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1시간동안 설교하셨다고 한다. 그 ‘이처럼’ 안에는 창세 전의 계획, 십자
가의 고난, 부활,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다 담겨 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중심에 항상 24시간 있어야 한다. 여러분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
에 이 사랑이 요동쳐야 한다.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다. 제가 상담도 하고
MBTI검사도 하면서 무의식을 체크해 본다. “내 안에 깊이 있는 단어 15개를 써
보라”고 한다. 지금 여러분이 해 보셔도 된다. 그 15개가 모두 복음적인 것이 아
니라면 여러분은 아직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뀐 것이다. 누가 톱 치더라도 내
안에서 복음이 나와야 진짜 된 것이다.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에게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을 적어보라고 하면 집중광구 ‘게임’이 나온다. 여학생들은 ‘휴대전화’가
나온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진짜 믿음과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여
러분 안에 진짜 믿음과 신앙이 그리스도이기를 축원드린다. 이게 되지 않으면 계
속 길도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난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랑을 체험하
시기를 축원드린다.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라고 했다. 열왕기상
에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고 나온다. 그러니 아가서는 솔로몬이 왕이
된 초창기에 쓴 것이다. 솔로몬은 천 명의 여인이 있었지만, 아가서에서는 “내 완
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구나”라고 고백한다. 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사랑
한 사람은 술람미 여인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솔로몬은 나중에 타락하
여 그 많은 여인과 우상을 때문에 무너졌다. 편해지고 응답받으니까 하나님을 버
리고 우상숭배하고 마음을 뺏기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다.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분명하다. 신랑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유일한 신부처럼 사랑하신다는 ‘참사랑’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아가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다. 진짜 여러분이 애인을 사랑하듯이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가 일본집회에 갔을 때 겪은 일이다. 서틀버
스 옆자리에 한국말을 잘하는 일본 아주머니가 앉았다. 알고 보니 한국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팬이라서 한국말을 배웠고, 딸까지 포섭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국에 온다고 했다. 나는 BTS는 알지만 세븐틴은 몰라서 되물었더니, 그것도 모
르냐며 핀잔을 들었다. 그 아주머니가 왜 그렇게 하겠는가? 사랑하니까 그렇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도 그와 같다. 팬이 가수를 사랑하듯, 주님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 아가서는 술람미라는 친한 신분의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노래한 가사이다. 아가서라는 뜻은 '아름다운 노래', 영어로는 '노래 중의 노래(Song of Songs)'이다. 어떤 신학자는 '책 중의 책', '성경 중의 성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어떤 목사님은 30년 동안 특강할 때, 다른 설교는 안 하고 아가서 설교만 하셨다고 한다. 제가 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니까. 그게 없으면 다 가짜이다. 사랑 때문에 교회도 사랑하고,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인내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는 것이다. 즉,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최고의 사랑고백이 이 "아가서"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는 항상 바람난 사람처럼 판쟁이를 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지만, 주님은 짝사랑하는 눈으로, 마치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썩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우리는 배신자이고 악하며 늘 판쟁이를 일삼지만, 주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비록 우리에게 자격이나 조건은 없지만, 주님의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승리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그 사랑을 믿어야 한다. 만약 우리도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고 영원한 축복의 대로에 서게 될 것이다. 아가서는 이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순수하고 참된 사랑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가서의 내용은 순탄한 사랑만을 그리지 않는다. 솔로몬은 사랑하지만 술람미 여인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도망가기도 하고, 솔로몬이 다시 찾아오기도 한다. 이러한 사랑과 갈등을 거쳐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고, 마침내 결혼에 이르는 과정이 아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주님과 우리의 사랑관계도 이와 같다. 모든 사랑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영화 '킹 오브 킹스'를 만든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 10년,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지켜왔다고 한다. 로열티를 뺀 위기도 많았고 부도 직전까지 갔지만, 그 일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의 사랑과 신앙생활, 직업과 전문분야도 마찬가지다. 과정 속에서는 '사랑과 전쟁'이라는 말처럼 치열한 일들이 벌어진다. 잘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작품이 만들어지고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지, 저절로 뚝 떨어지는 것은 없다. 사랑에는 항상 갈등, 시기, 질투 같은 반대되는 것들이 짝처럼 따라다닌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그러하셨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랑'이다. 주님에 대한 사랑, 그 분에 대한 사랑, 목숨을 걸어야 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했을 때 그 길을 갈 수 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과정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연구하는 카이스트 교수님이 계신다. 그분은 아침부터 밤까지 반도체 회로만 그리는데도 너무 행복하다고 한다. 남들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지만, 그분은 진짜 그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한 사람의 사랑 덕분에 우리나라는 AI시대에 최고의 반도체 강국이 되었고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과 완전한 참사랑의 관계에 성공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1. 아가서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 아가서를 어렵게 느끼지 않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1) 시적인 표현과 상징성 아가서는 시적인 표현기법으로 기록되었으며 상징성이 매우 많다. 이 문학적 장치를 이해해야 한다.

(2) 오페라와 뮤지컬의 대본 아가서는 한 편의 뮤지컬 대본과 같다. 대본만 읽으면 감동이 덜할 수 있다. 오히려 요즘 유행하는 가요가사가 더 마음에 와 닿을 때가 있다.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이라는 노래가사를 보라.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애절함이 느껴진다. 이승철의 노래도 그렇다. 이런 가요가사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감정이입해서 느껴보라. 아가서를 딱딱한 글로 아니라 절절한 사랑노래로 읽어야 한다.

(3) 1인 다역의 구조 아가서는 1인 다역으로 표현된 부분이 많다.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하기도 하고, 제삼자에게 말하기도 하며 상황을 묘사하기도 한다. 우리 개역개정성경은 이 부분이 쏙 떨어져 있어서 헷갈릴 수 있다. 하지만 표준새번역이나 공동번역성경을 보면 '신부', '신랑', '합창' 등으로 화자가 구분되어 있다. 즉, 아가서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장별 핵심내용)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 중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난 핵심구절들을 살펴보고자.

(1) 아가서 1장 3절에 "네 기쁨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쓴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구절이 있다. 표준새번역으로 보면 더 이해가 쉽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용, 사람들은 임을 쫓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나 아름다워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표현이다."라 부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표현이다.

(2) 아가서 2장 2절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가시가 가득한 곳에 핀 꽃은 더 돋보인다. 광야같은 세상, 고난과 아픔이 많은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아름답다는 것이다.

(3) 아가서 3장 11절 "시온의 딸들이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씩은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어머니가 씩은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는 것이다. 7절에서 8절을 보면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육십 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찻느니라" 이는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사탄의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지키시고, 마침내 천국혼인잔치로 인도하실 것을 상징한다.

(4) 아가서 4장 7절에 흠이 없는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사랑하면 흠이 보이지 않는다. 자녀가 잘못해도 부모의 눈에는 성장과정으로 보일 뿐이다. 사랑이 없으면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사랑하면 덮어주고 기도해준다. 여러분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세상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이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유일한 신부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린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5) 아가서 5장 2절에서 5절 문을 두드리는 주님 아가서 5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온다. 예수님께서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 나오"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믿기를 원하신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이끌려 억지로 교회에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은 "나는 너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하시며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신다. 그 사랑이 체험되기를 축원드린다. 5장 4절과 5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지방에 떨어지는구나"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문을 열어야 하는데 손잡이에 기름(몰약)이 묻어 있으면 미끄러워서 열기가 어렵다. 즉,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려 할 때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여기서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향료로 고통, 죽음, 희생, 장례를 상징하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향기를 담고 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이 핑계를 대며 복음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으려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부활의 주님, 구원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본문은 바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며,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란다. 그렇다면 찬송과 뮤지컬은 왜 중요하나? 어떤 분은 찬양만 듣고도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나기도 한다. 한 가수의 이야기다. 그분은 삶이 너무 힘들어 이끌려다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예배시간 내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왜 그랬겠는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이다. 그 찬양과 곡조, 그리고 말씀이 그분의 영혼을 계속해서 어루만졌던 것이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드린다. 마음을 완악한 채로 내버려 두지 마라. 그 완악함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기를 축원드린다.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여시라.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제자, 그리스도의 절대제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6) 아가서 6장 성숙한 사랑과 동행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아오리라" 이제 신앙이 성숙하여 주님과 함께 동산에서 양 떼를 먹이고, 함께 뛰노는 단계로 나아간다.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

(7) 아가서 7장 1절에서 7절 성도의 아름다움 아가서 7장 1절에서 7절에서는 여인의 신체부위를 하나하나 묘사하며 아름다움을 찬양한다. 제가 이 묘사가 너무 궁급해서 챗GPT(AI)에게 이 내용을 입력하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봤다. 그런데 결과물이 별로 예쁘지 않았다. 아직 AI가 성경의 깊은 뜻을 모르는 것 같다(웃음).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모습이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4절에 "목은 상아 땅대 같구나"는 것은 영적 땅대와도 연결된다. 무슨 말인가? "진짜 땅대는 진짜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여러분 현장을 다 이렇게 만드시기를 축원드린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주님은 우리를 세상 어떤 미인보다 아름답게 보신다.

(8)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불변의 사랑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주님의 사랑은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우리는 변하고 배신하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구원받고 제자로 쓰임 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결론

이 연약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 참사랑교회가 꿈꾸는 3천 제자, 40만 제자, 민족, 세계복음화를 위한 1천만 제자를 237나라에 세우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작게나마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시밭 같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체험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